- 오늘의 기록을 미래의 자산으로 -

해외 아카이브 연수 결과보고

Ⅰ 해외연수 개요

☐ **연수주제 : 해외 아카이브 운영사례 조사 연구**

☐ **연수목적**

◒ 지방기록물의 수집·보존·전시 사례조사

◒ 국가의 공공기록물에서부터 지방기록물, 역사적 사건들을 재구성하여 동시대인들과 공유하는 방법 연구

☐ **연수기간 : 2019. 7. 3.(수) ~ 7. 13.(수) ※ 9박 10일**

☐ **연수장소 : 뉴욕, 워싱턴 D.C.**

☐ **연수자 : 4명**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세 무 1 과	행정5급	서석순	총괄
중 곡 제 4 동	행정6급	김희순	연수 계획서 수립
감 사 담 당 관	행정6급	어광희	총무
민 원 여 권 과	임기제7급	나영선	귀국보고서 작성, 아이디어뱅크 제안

▢ 시찰 및 견학 기관 : 총 6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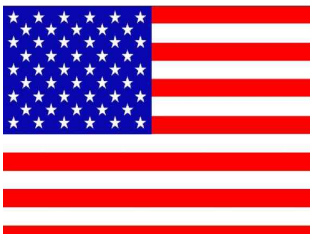
기 관 명	위 치	비 고
뉴욕시 지방기록원	31 Chambers Street Room 103 New York, NY 10007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1000 5th Ave, New York, NY 10028	뉴욕
뉴욕시 국립기록원	1 Bowling Green, New York, NY 10004	뉴욕
미국 국립기록청	700 Pennsylvania Ave NW, Washington, DC 20408	워싱턴 D·C
링컨기념관	Lincoln Memorial Cir SW, Washington D.C	워싱턴 D·C
하이라인 파크	New York, NY 10011	뉴욕
9/11 메모리얼파크 & 박물관	180 Greenwich St, New York, NY 10007	뉴욕
뉴욕 공립도서관	476 5th Ave, New York, NY 10018	뉴욕

▢ 출장 일정

일 자		일 정 내 용
1일차	7/3(수)	• 뉴욕(JFC)공항 도착, 숙소 이동 • 뉴욕시 지방기록원(New York City Municipal Archives)
2일차	7/4(목)	메트로폴리탄 박물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3일차	7/5(금)	뉴욕시 국립기록원(National Archives at New York City)
4일차	7/6(토)	문화탐방
5일차	7/7(일)	뉴욕 ⇒ 워싱턴 D.C. 이동
6일차	7/8(월)	• 미국 국립기록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 링컨 기념관(Lincoln Memorial)
7일차	7/9(화)	• 워싱턴D·C ⇒ 뉴욕 이동 • 하이라인 파크(High Line Park)
8일차	7/10(수)	9/11 메모리얼파크 그라운드 제로 & 박물관 (9/11 Memorial & Museum)
9일차	7/11(목)	뉴욕 공립도서관
10일차	7/12(금)	뉴욕출발 13:55 ⇒ 인천 도착 7/13(토) 17:20

Ⅱ 방문지역 일반 현황

▢ 미국: 북아메리카 대륙의 연방공화국



언어: 영어
면적: 9억 8,315만 1천㏊ 세계3위 (2015 국토교통부, FAO 기준)
인구: 3억 2,909만 3,110명 세계3위 (2019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GDP: 19조 3,906억 400만 달러 세계1위
(2017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종교: 개신교 46.5%, 가톨릭 20.8%(기타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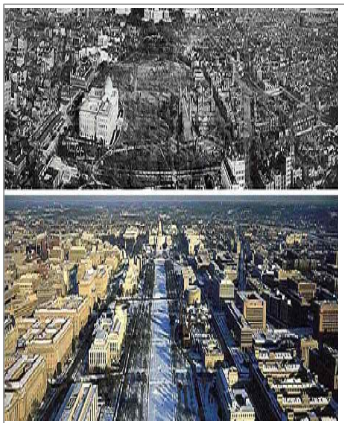
▢ 뉴욕: 미국 뉴욕주에 있는 최대의 항구도시



뉴욕 맨하탄 전경

미국 최대의 도시로서, 1790년 이래 수도로서의 지위는 상실했으나, 미국의 상업·금융·무역의 중심지로서, 또 공업도시로서 경제적 수도라 하기에 충분한 지위에 있으며, 또 많은 대학·연구소·박물관·극장·영화관 등 미국 문화의 중심지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대무역항으로서 대서양 항로의 서단에 위치하는 가장 중요한 항구이며, 1920년대 이후에는 런던을 대신하여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의 국제적인 지위 향상과 더불어 세계 경제에 대한 지배적 지위는 한층 강화되었으며, 1946년 국제연합(UN) 본부가 설치된 후에는 국제정치의 각축장이 되었다.

▢ 워싱턴 D · C: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옛날과 지금

정식명칭은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이며, 워싱턴 D.C.로 약칭된다. 포토맥강(江) 연안의 메릴랜드주(州)와 버지니아주(州) 사이에 있는 연방직할지이며, 어느 주에도 속해 있지 않다. 시가지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을 중심으로 넓은 도로들이 방사상으로 뻗어 있으며, 도로들은 바둑판 모양으로 교차되어 있다. 미국 입법·행정·사법부의 중심이며, 산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Ⅲ 방문기관 및 정책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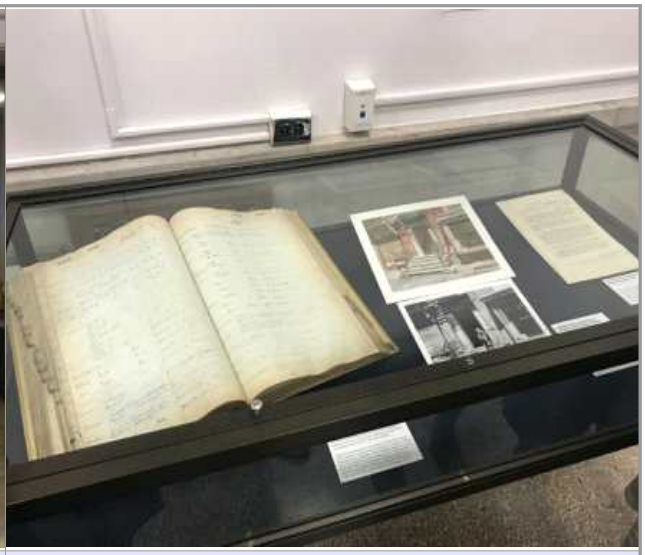
□ 뉴욕시 지방기록원(뉴욕시 지역의 기록원)

○ 방문일 : 2019. 7. 3. (수)

<table>
<tr><td></td><td></td></tr>
<tr><td>뉴욕시 지방기록원 건물 전경</td><td>뉴욕시 지방기록원 내부</td></tr>
<tr><td></td><td></td></tr>
<tr><td>자료열람실 전경
(열람한 자료 한 장씩 사진을 찍고 있음)</td><td>자료열람실 근무자 2명</td></tr>
<tr><td></td><td></td></tr>
<tr><td>영상으로 당시 도시계획의 모습을 방영</td><td>도시계획 당시 모형</td></tr>
</table>



초기 도시계획도



도시계획 당시 수기로 쓴 회계기록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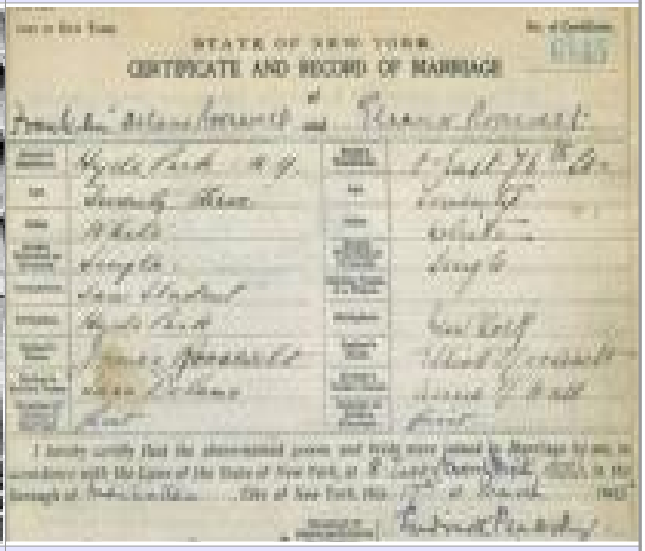
1977년 설립당시 기록원 전경



1968년도 시장 회의록



1940년대 세금을 걷기 위한 건물 사진



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과 Eleanor Roosevelt 영부인의 결혼 증명서(1905년 3월 17일)

○ 명칭: 뉴욕시 지방기록원(New York City Municipal archives)

- 하위부서: 기록정보서비스 센터: 1977년 설립
  (Department of Records Information Services, DORIS)

○ 설립일: 1950년

○ 개관시간

- 월~금, 2·4번째 토요일: 09:00~16:30 [목요일은 18:00]

○ 사명

- 2020년까지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뉴욕시의 역사적 및 현대기록을 제공하고, 시민 기록을 보존함

○ 대표적인 보존기록

- 뉴욕시장 관련 기록: 1826~2013
- 가족역사 기록: 출생, 결혼, 사망 관련 기록
- 형사행정 관련 기록: 1684~1966
- 사진컬렉션: 1940년대, 1980년 뉴욕의 모든 부동산 찍은 사진
  (재산세 부과에 활용하기 위해 생산)
- 건축 도면: 브루클린 다리, 센트럴 파크

○ 열람방법

- 직접방문 및 홈페이지에서 컬렉션을 검색하여 복사본을 주문
- 출생·사망·결혼 증명서 사본: 신청일로부터 4~6주 소요
- 사진: 신청일로부터 6주 소요

○ 주요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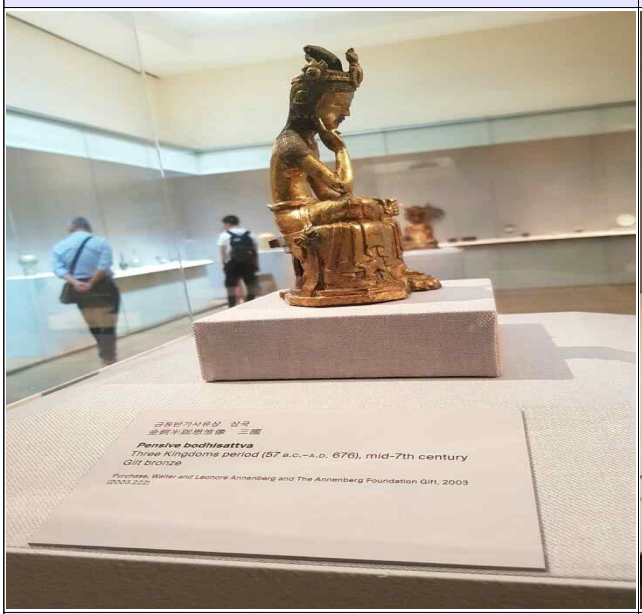
- 뉴욕시 슬럼 & 잊혀진 이태리 이민자 커뮤니티
- 여성은 역사를 만듭니다.
- 고속도로의 그림자, 리틀 시리아 등

○ 수수료

- 중요 종이기록 사본: 11달러[업무 담당자가 직접 복사]

▢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 방문일 : 2019. 7. 4. (목)

<table>
<tr><td></td><td></td></tr>
<tr><td>박물관 내부</td><td>방대한 양의 자료를
대륙별>나라별>유형별로 분류 전시</td></tr>
<tr><td>
</td><td>
</td></tr>
<tr><td>메트로 폴리탄 입장권</td><td>박물관 내의 한국전시실</td></tr>
<tr><td>
</td><td></td></tr>
<tr><td>반가사유상</td><td>한국 도자기</td></tr>
</table>

○ 명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 특징

-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전시대, 전 지역에 관련한 유물 소장

- 정부기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여 설립

○ 보유량: 200만점 이상

○ 설립일: 1870년 소규모로 개관, 1954년 대규모 개축

○ 개관시간

- 일~목: 10:00~17:30, 금·토: 10:00~21:00

○ 주요 소장품

- 이집트, 그리스, 중세, 유럽 및 미국의 회화

- 조각, 공예, 판화, 가구 등 세계 각국의 유물

- 렘브란트, 인상파와 그 이후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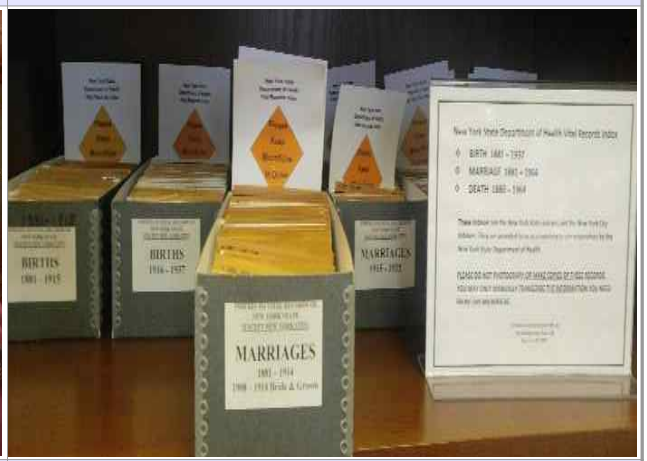
○ 관람방법

- 오디오 가이드, 가이드 투어 이용 가능

- 어린이, 성인, 대학생, 교육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음

❑ 뉴욕시 국립기록원(연방기관 및 법원의 영구기록물 보존소)

○ 방문일 : 2019. 7. 5. (금)

<table>
<tr><td>
</td><td></td></tr>
<tr><td>뉴욕 국립기록원 인포메이션</td><td>열람실 전경</td></tr>
<tr><td></td><td>
</td></tr>
<tr><td>인터뷰 모습</td><td>라벨링 된 마이크로필름</td></tr>
<tr><td></td><td></td></tr>
<tr><td>마이크로필름 보존현황</td><td>마이크로필름 시연</td></tr>
</table>

○ 명칭: 뉴욕시 국립기록원(National Archives at New York City)

○ 설립일: 1977년

○ 개관시간

- 월~토: 10:00~17:00 [토요일은 컴퓨터 및 마이크로 필름 조사만 가능]
- 원본 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방문 전에 약속해야 함

○ 사명

- 미국 정부의 기록을 보존함
- 시민들이 기록유산을 발견사용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원
-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행동에 대한 필수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대표적인 보존기록

- 1685년부터 현재까지 연방기관 및 법원 영구기록물 보존
  (뉴욕, 뉴저지, 푸에르토리코 및 버진 아일랜드)

○ 자주 열람하는 기록: 이민기록(여객 도착 기록)

○ 이민기록에 포함된 내용

- 국적, 출생지, 선박이름, 미국입국일, 나이, 신장, 눈 및 머리 색깔
- 직업, 마지막 거주지, 미국 친척 이름과 주소, 뉴욕으로 가지고 온 돈

○ 마이크로필름화 된 기록

- 1820~1846년, 1897~1943년 뉴욕항에 도착한 선박의 여객 명단
- 관세청과 이민 귀화국에 의해 작성됨

○ 열람방법

- 보존기록을 열람하려면 국립기록청 연구원 신분증[1]이 필요
- 원본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약속이 필요하며, 약속 후 일주일~10일정도 소요됨
- 마이크로필름 열람은 무료

○ 수수료

- 마이크로 필름 복사본: 1페이지 당 40달러

1) 신분증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면 발급. 1년이 유효기간이며 갱신 가능함.

❑ 뉴욕시 국립기록원 內 인디언 박물관

○ 방문일 : 2019. 7. 5. (금)



초등학생들의 견학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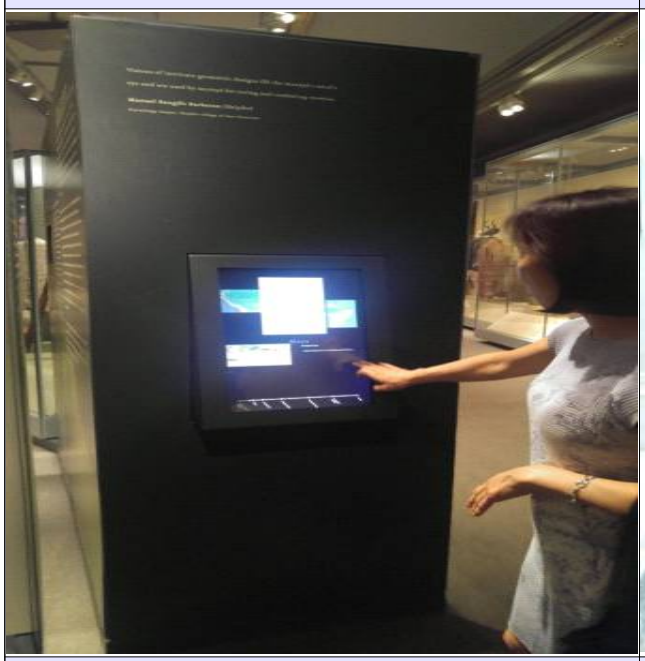
인디언들의 의상 등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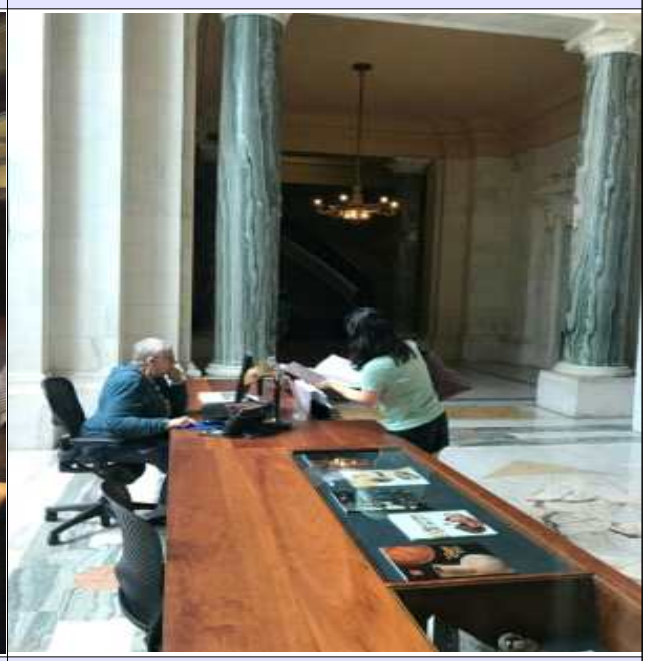
미술품 전시



기록 전시실



박물관 내 안내 키오스크



인터뷰 모습

▢ 미국 국립기록청(미국 연방정부의 영구기록물 보존)

○ 방문일 : 2019. 7. 8.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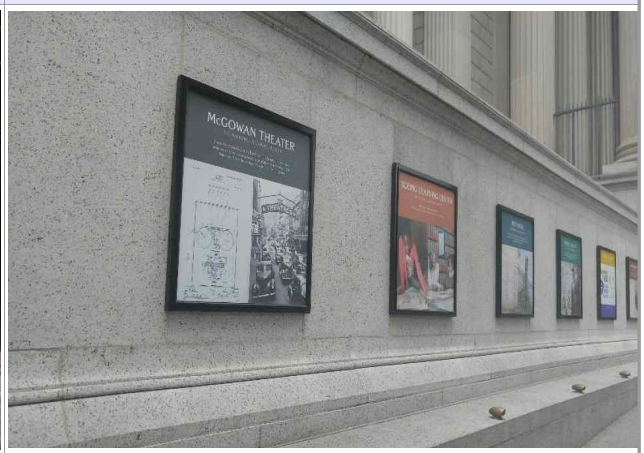
워싱턴 D.C. 국립기록청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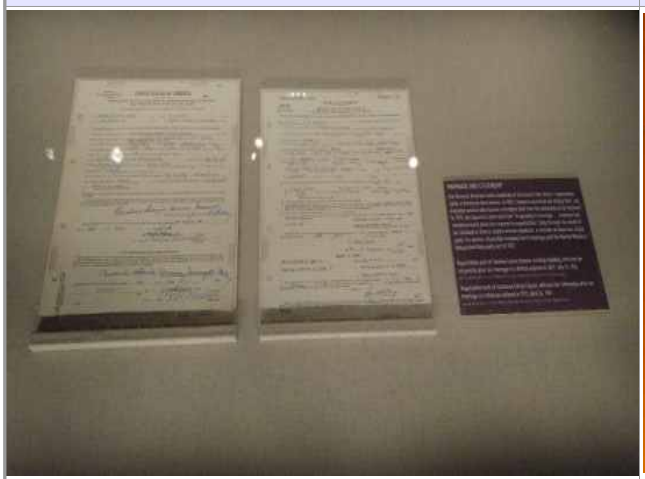
국립기록청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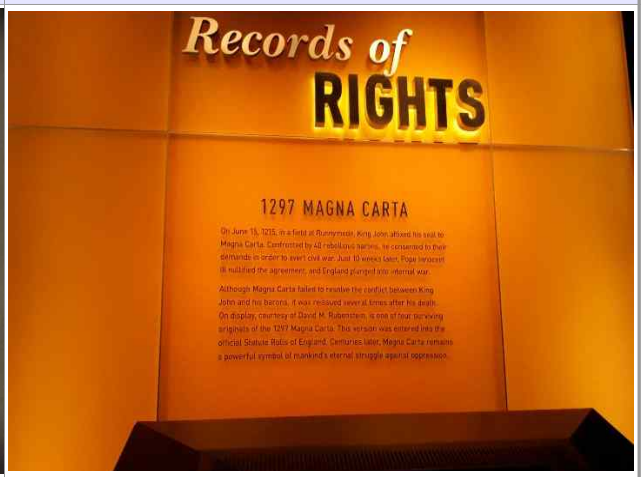
박물관 안내판



전시 안내판



여성의 결혼과 시민권 관련문서(1902년)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국가로 송환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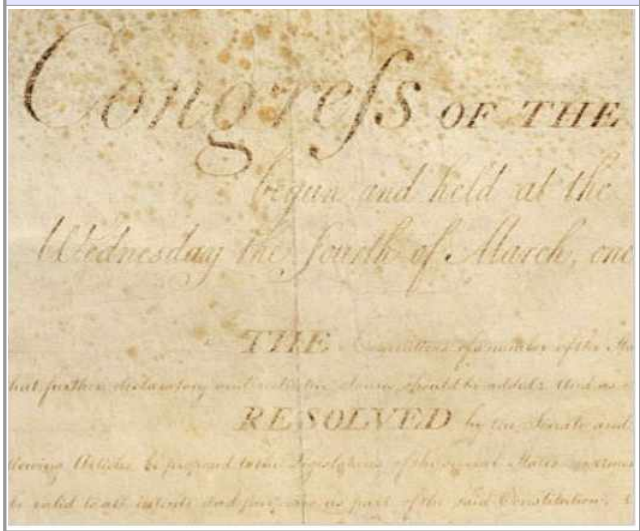
미국의 권리장전 문서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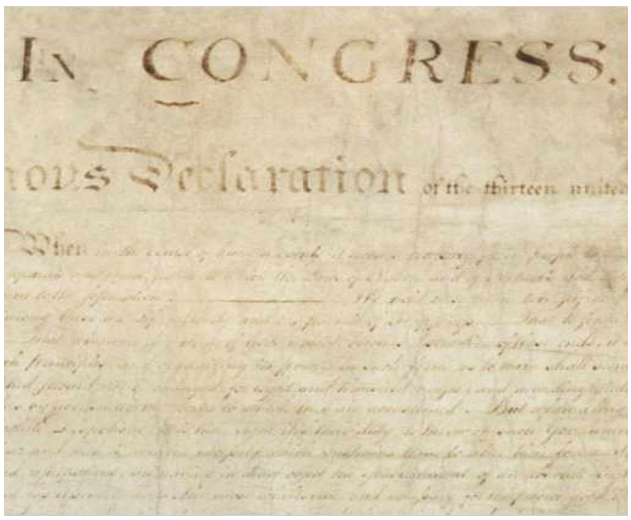
미국 국립기록청 전경



헌법



권리장전: 헌법수정안의 처음 10개 조항
시민과 주정부의 권리를 규정함



독립선언문



서고에서 기록물 검색하는 직원 모습



역사교육에 필요한 사료를 검색하는 사이트

○ 명칭: 미국 국립기록청(National Archive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 보유량: 2백만 입방피트

○ 직원수: 390명의 연구원

○ 설립일: 193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1775년부터 수집시작

○ 개관시간

- 월~금: 08:45~17:45, 토일: 휴무[전시관은 국경일 2회를 제외하고 연중무휴]

○ 사명

- 연방정부가 업무과정에서 연간 생산된 2~5% 중요 영구기록물 보존
-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의 기록을 보존하고 제공해 옴
- 기록 관리는 국민의 권리이며, 공무원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함
- 우리의 역사를 국가의 기록으로 서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미국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행동에 대한 필수문서에 지속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대표적인 보존기록

- 헌법, 권리장전, 독립선언문 전시
- 의회, 대법원,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의 영구 기록
- 1차 세계대전 병역 기록, 2차 세계대전 사진
- 19세기 어린이가 신문 파는 사진, 존F 케네디 대통령 암살혐의 체포영장

○ 자주 열람하는 기록

- 남북 전쟁기록, 토지기록, 인디언 기록, 선박 일지

○ 열람방법

- ADD(Acces to Archiving Database)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기록물 온라인 검색이 가능

○ 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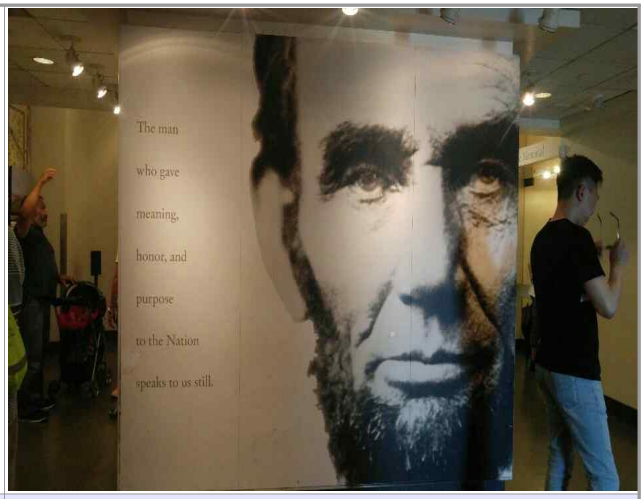
-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무료
- 본인이 종이로 복사하거나 스캔: 0.25달러

☐ 링컨 기념관(16대 링컨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간)

○ 방문일 : 2019. 7. 8.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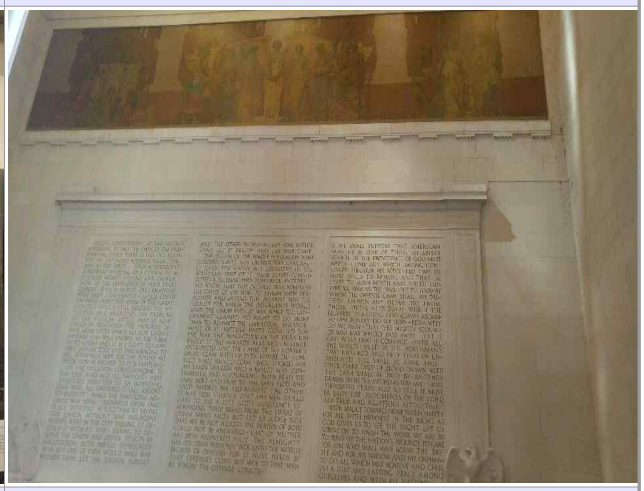
링컨기념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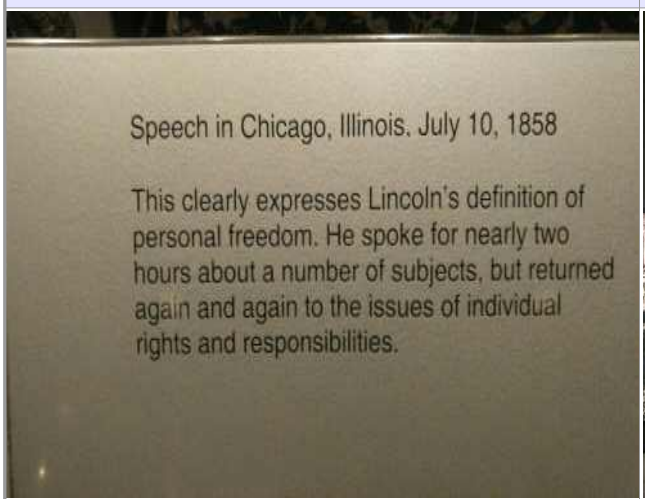
링컨 초상화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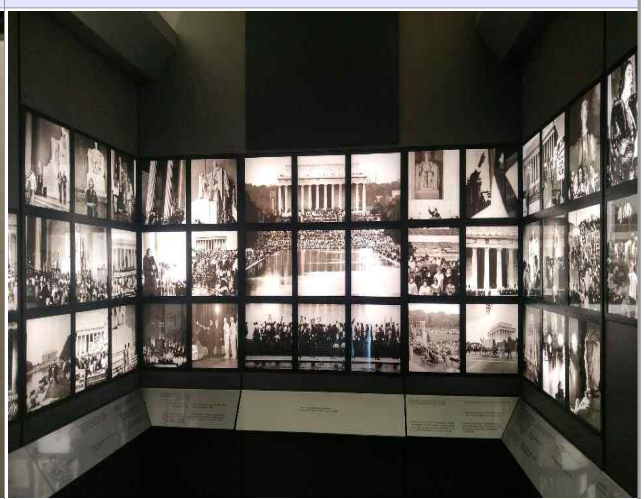
링컨대통령 연설문



링컨대통령 연설문



연설한 날짜, 장소, 내용까지 상세히 기록



대통령 관련 사진 전시

○ 명칭: 링컨 기념관(Lincoln Memorial)

※ 링컨 기록관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있어서 방문하지 못함

○ 설립일: 1922년

○ 개관시간: 24시간 연중무휴

- 통역 프로그램: 09:00~ 22:00 [12월 25일 제외]

○ 특징

- 제16대 대통령인 링컨의 공적을 기려 건축한 기념관
- 건축가 헨리 베이컨이 설계
- 36개의 기둥인 대통령 암살 당시 북부 연방 36개 주(州)를 의미함
-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를 연설했던 장소

○ 열람방법

- 점자 브로셔 제공(무료), 링컨 기념관 영화에 자막 사용 가능(이메일 신청)

※ 링컨 기록관 [홈페이지 조사]

- 설립일: 2005년
- 소장품
  - 링컨의 생애와 관련된 사진, 기록물, 공예품
  - 어린 시절 살던 생가, 취임 후 백악관에서의 생활 재현
- 관람객: 60만명(2009년, 링컨 탄생 200주년), 3년간 3백만명
- 사명
  - 링컨대통령의 기록물 관리
  - 다른 대통령 기록관과 네트워크 형성
  - 다양한 기념행사, 기획전시, 관광산업과의 연계

□ 하이라인 파크

○ 방문일 : 2019. 7. 9. (화)

<table>
<tr><td></td><td></td></tr>
<tr><td>하이라인파크 전경</td><td>산책길에 의자가 있어 쉬어 갈 수 있음</td></tr>
<tr><td></td><td></td></tr>
<tr><td>철도를 지른 단면 맨해튼 전경을 바라볼 수 있음</td><td>도심속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음</td></tr>
</table>

○ 명칭: 하이라인 파크(High Line Park)

○ 설립일: 1922년

○ 개관시간: 07:00~23:00

○ 특징

- 서울시가 “서울로7017”로 벤치마킹한 도심 속 산책로
- 철거 예정이었던 철로를 지역공동체가 공원으로 조성함
- 고가다리를 걸으면서 자연이 어우러진 곳에서 맨하탄 뷰 감상
- 연간 5백 만명이 찾는 관광명소

□ 911 메모리얼 파크 그라운드제로 & 박물관

(911테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 방문일 : 2019. 7. 10. (수)

<table>
<tr><td></td><td>
</td></tr>
<tr><td>그라운드 제로 전경</td><td>커다란 연못 주위로 희생자의 이름을 새김</td></tr>
<tr><td></td><td></td></tr>
<tr><td>사고가 있었던 건물의 외벽 활용하여 박물관 신축</td><td>박물관 내부 전경</td></tr>
<tr><td></td><td></td></tr>
<tr><td>건물 붕괴 당시 깔려 반파된 소방차</td><td>연기 자욱한 곳에서 출구를 찾아
내려가던 사람들이 이용한 실제 계단</td></tr>
</table>





사고 당시 시민의 모습을 영상으로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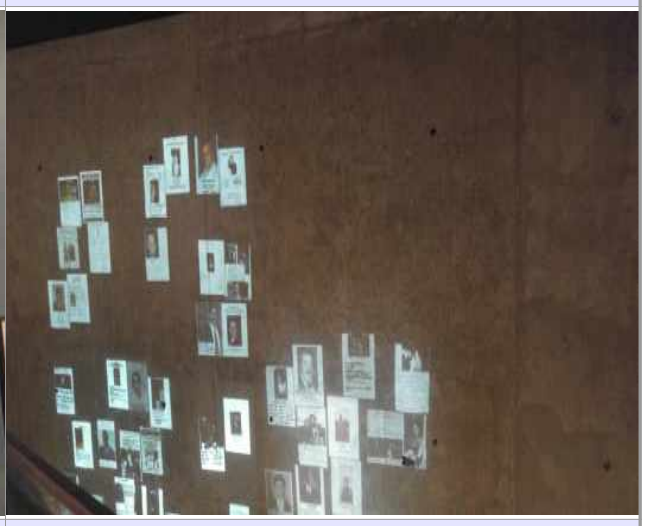
세계무역센터 건축과정을 담은 사진 전시



사고 현장 사진 전시



세계무역센터를 건축한 노동자의 사진



희생자의 사진 전시

○ 명칭: 911 메모리얼 파크 그라운드제로 & 박물관(9/11 Memorial & Museum)

○ 보유량: 11,000개 이상의 유물

○ 설립일: 2011년(9.11기념 10주년)

○ 특징

-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현장을 추모공원으로 만듦
- 테러로 붕괴된 쌍둥이 건물이 서있던 자리에 두 개의 연못을 조성
- 연못은 테러로 인해 흘린 유가족들과 미국인의 눈물을 상징
- 테두리에는 희생자이름이 새겨져 있음

(가족, 직장동료의 이름을 가까운 곳에 모아져 새겨있어, 유가족들의 기억을 되살리게 함)

○ 개관시간

- 일~목 : 09:00~20:00, 금·토: 09:00~19:00(마지막 금·토 19:00)

○ 사명

- 9.11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문서화하는 국가의 주요 기관임
- 멀티미디어, 아카이브, 이야기를 통해 9.11 이야기와 관련 유물 수집
- 방문자가 희생된 사람들의 삶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모든 피해자의 삶을 기념하고 있음

○ 대표적인 전시품

- 가족이 기증한 피해자의 개인 유물

(생존자가 신고 뛰었던 피 묻은 하이힐)

- 개인프로필을 보고 터치 스크린을 하면 피해자 개인에 대한 설명이 있음
- 사고 현장의 영상, 보도되었던 뉴스, 구조대원들을 말들이 재현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숨진 희생자의 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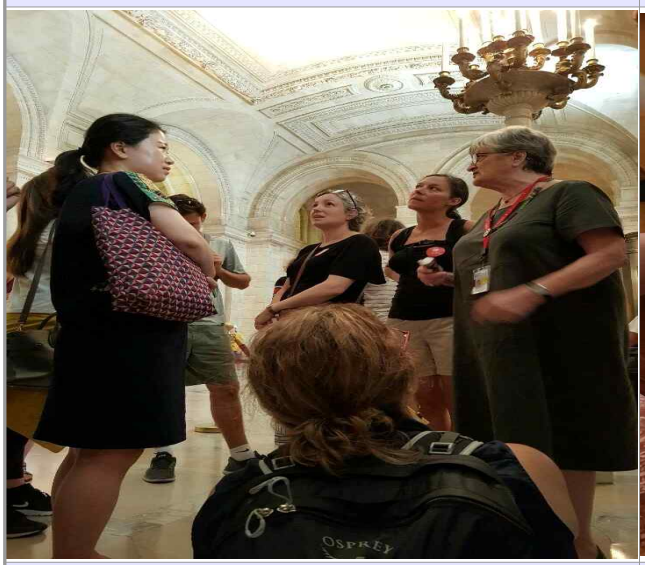
- 소방관이 구조당시 입었던 타 들어간 방화복

○ 투어방법

- 전문가가 진행하는 투어를 예약하여 참여
- 오디오가이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뉴욕 공립도서관

○ 방문일 : 2019. 7. 11. (목)

<table>
<tr><td></td><td></td></tr>
<tr><td>공립도서관 전경</td><td>도서관 3층 열람실 내부</td></tr>
<tr><td></td><td></td></tr>
<tr><td>열람실 내부</td><td>열람실 내부</td></tr>
<tr><td></td><td></td></tr>
<tr><td>도서관 무료투어 해설자의 설명 경청</td><td>「동해」가 일본해로 표시되어 있음
(지도 도서관)</td></tr>
</table>

○ 명칭: 뉴욕 공립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 NYPL)

○ 특징

- 세계 5대 도서관 중 하나
- 영화 촬영장소로 이용되어 관광객들에게 인기(섹스 앤 더 시티, 투모로우)

○ 보유량: 3천 800만점이 넘는 도서 및 소장품

○ 설립일: 1911년 본관 준공(1980년대 확장)

○ 개관시간

- 화~금: 10:45~19:45, 월: 10:00~17:45, 일: 휴무

○ 사명

-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지식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를 강화시킴

○ 대표적인 보존기록

- 세익스피어의 첫 작품집, 콜럼버스가 쓴 편지
- 토머스 제퍼슨 '독립선언문' 자필 원고

○ 열람방법

- 3층 열람실 무료 이용
-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목록 검색 가능

Ⅳ 총 평

□ 배울만한 제도 및 정책

기록이 있어야 과거의 역사를 알고, 현재에는 투명성과 알권리, 권력 감시가 있을 수 있으며, 미래엔 올바르고 희망 넘치는 국가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기록 보존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는 미국의 기록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가 배울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기록물 보존에 대한 중요성 깨닫는 인식 개선이 우선

미국은 연방정부의 기록물과 지방정부(주 하위 단위 – State, County, City)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각각 두고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주 하위의 자치단체는 우리가 방문했던 "뉴욕시 지방 기록원"과 같이 주로

가족역사, 행정 관련, 건축 등 그 지역에서 발생된 기록들을 보존, 관리하는 기록관을 주로 설치하고, 주(State) 단위에도 별도로 영구기록보존소가 있는 등 한번 생산된 기록물을 보존, 관리하는데 큰 신경을 쓰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물 관리는 무단파기로 논란이 된 여러 사건들(2017년 관세청장 면세점 심사자료 파기, 2018년 수자원공사 '4대강 문건' 등 파기, 2018년 인천시 기록물 무단파기 등)을 보아도 기록물 보존, 관리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데 국가차원에서 기록물 관리 중요성에 대한 교육 의무화 · 강화로 철저한 기록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하고 미국 국가기록관리청의 감사와 법적 권한 부여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기록원의 감사 및 기록관리 실태평가 기능 권한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우리 광진구 기록관에서 「기록물 폐기」시엔 필요 없는 기록물을 단순히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기록물을 선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내실 있는 심의절차를 거쳐 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 역사 기록물 전시를 통해 오늘이 존재함을 깨닫다.

뉴욕시 국립기록원에는 뉴욕항에 도착한 선박의 여객 명단 등 이민기록을 다수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열람하기 위해 자주 방문한다고 한다. 한편 기록원내에서는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오기 전 처음부터 터를 잡고 살아왔던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위한 박물관도 별도로 운영중에 있었다. 이는 유럽인들이 이민오기 전 미국 대륙의 주인이였던 인디언들을 기억해주고, 급격한 인구 감소와 문화파괴 등으로 거의 사라져 가는 인디언들의 기록과 유물을 보존해 주고자 하는 따뜻한 배려를 엿볼 수 있었다.
한편 뉴욕시 지방기록원은 뉴욕시장 회의록, 형사행정 관련 기록, 건축도면(브루클린 다리, 센트럴 파크) 등 뉴욕시가 조성되기 시작할 때 부터의 지역관련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었고, 큰 규모는 아니였지만 오늘날 뉴욕시 모습을 갖추기 전 도시계획과 건물 설계, 시공 등의 건축과정 사진 및 회계 관련 기록물들을 전시중에 있었다.
미국 대륙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과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지금의 뉴욕

모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시해 놓은 것처럼, 우리도 신청사 건립시 민원인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 광진구의 시작과 현재를 알 수 있는 행정 박물실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였으면 좋겠다.

○ 소중하고 의미있는 것에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보존한다.

기록으로 과거와 현재를 알고 이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듯이, 역사의 현장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채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곳이 있었다. 바로 2011.9.11. 뉴욕의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에 항공기 자살테러가 발생했던 곳, 지금은 911 메모리얼파크(memorial park)와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로 조성된 곳이다. 맨하탄 월 스트리트에 위치한 이곳은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고 비싼 기회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날의 흔적들을 남겨 사람들에게 희생자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건설자금을 모아 그곳을 기념공원과 박물관으로 조성하였다.

희생자들을 기리고 기억시키고자 '회상'을 주제로 타다 만 건물 골조, 계단 등 무너진 건물 잔해들과 구조활동 당시의 참옥함을 알 수 있는 찌그러진 소방차, 희생자들의 음성과 영상, 생전에 타고 다녔던 오토바이 등 사적이고 소소한 흔적까지 전시하고 있는 그곳이야 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기록을 담고 있었다.

그날의 비극을 잊지 않고자, 희생된 자들의 소중했던 삶을 영원히 남기고자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세계무역센터 주변 전체를 보존하고 박물관으로 남긴 미국인들의 의식과 문화를, 무엇이든 쉽게 잊고 버리는 우리들이 많이 배워야 할 부분인 것 같다.

○ 제대로 건립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미국의 개별 대통령 기록관 중 대표적인 링컨 기록관을 가 보고 싶었지만,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있어 방문하지는 못하고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으로 만족해야 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2005년에 건립된 "링컨 기록관"에 대해 언급해 보자면 이전부터 링컨이 정치적으로 성장한 스프링필드에는 링컨의 생가, 묘지 등 관련 유적을 보존하고 있었지만, 도시의 규모가 작고

관광자원 또한 특별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기록관 건립시 지역의 상징 건물로 부각시키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1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지출하여 링컨 대통령 기록관을 건립하였다.

지금은 기록관 운영인력과 인턴, 자원봉사자 등 평균적으로 80~100여 명의 인력이 링컨 대통령기록관을 운영하고 있고, 2009년 약 60만명(링컨 탄생 200주년), 2010~2012년 3년간 약 30만명이 방문하였으며, 2013년에는 영화 '링컨'이 개봉하면서 약 3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 기록관은 주정부와 링컨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면서 다른 대통령 기록관과도 네트워크를 형성, 다양한 기념행사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연수 막바지에 방문한 뉴욕 공립도서관도 1911년에 건립당시엔 크로톤 저수지를 복개한 곳에 건설되었지만, 미국의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의 거액 기부로 뉴욕시 전역에 65개의 도서관 분관을 짓는데 쓰여졌고, 그 중 메인 분관인 현재 뉴욕 공립도서관을 짓게 되었다. 당시 유행했던 보자르 양식에 하얀 대리석 건물로 건설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대리석 건물로 지어졌고, 3천 800만점이 넘는 도서와 소장품이 무려 120km달하는 책꽂이에 진열되어 있는 등 현재는 세계 5대 도서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처럼 아름다운 건축양식과 내부 인테리어로 지금까지도 많은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와 같이 링컨 대통령기록관이나 뉴욕 공립도서관 두 곳 모두 초기 건축 비용이 많이 들긴했지만, 방문객들의 이용과 관심을 끌기 위해 건축물 건립에 심혈을 기울였고 가치있는 자료와 희귀본 소장, 내실있는 운영과 볼거리 제공으로 오늘날의 명성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구도 구민들을 위한 시설물을 지을 때 초기 건축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중앙기관의 예산을 지원 받거나 기금 조성,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 문제를 해결하여 건축물의 기능과 디자인 등을 세심히 고려한 광진구의 랜드마크, 서울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멋진 공공시설물을 언젠가 건축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Ⅴ 참가자 개인 소감

참가자	내 용
서석순 (세무1과)	뉴욕, 워싱턴! 연수를 통해 세계 중심 도시인 뉴욕과 워싱턴의 기록보존소 운영사례를 보고 느낀 점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광진구의 태동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후대에 길이 남길 수 있도록 각종 행정자료를 보존하고 관리하여 전시하는 행정자료실을 좀 더 확대하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연수를 기획 하였다. 연수단은 뉴욕과 워싱턴의 뉴욕국립기록원, 뉴욕시 지방기록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911메모리얼파크(memorial park)의 그라운드제로(ground zero), 미국 국립기록청, 링컨기념관, 하이라인 파크, 뉴욕 공립도서관 등을 방문하였는데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2001년 9월 11일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조직인 알 카에다에 의해 자행된 테러로 인해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뉴욕 세계무역센터 자리에 건립된 메모리얼파크와 그라운드제로였다. 그라운드제로 풀은 희생자들의 이름이 음각된 검은색대리석으로 만들어 떨어지는 물이 얼마나 깊게 떨어지는지를 알 수 없게 조성 됐는데 그것은 뉴욕커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슬픔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계의 중심!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 중의 한곳인 월가의 그 넓은 공간을 메모리얼공원으로 조성했다는 것이다. 그 날의 아픔을 잊지 말자 아니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미국인의 의지가 담긴 역사기록물인 것이었다. 경우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크고 작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그중 1995년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비교하게 되었다. 이 사고로 엄청난 사상자와 재산피해를 냈고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자리에는 다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했다는 사실이다. 기록으로 남기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각성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비슷한 사건과 사고들이 반복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뉴욕 메모리얼 파크의 그라운드제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사례가 아닌가 한다. 현재 우리의 현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기록물을 보존하기에 훨씬 용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에 대한 보존과 보관 그리고 전시 등에 있어 소홀해진 면이 없지 않다. 서울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를 기록으로 남겨 옛것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이런 자료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음으로 해서 미래를 대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광진구도 서울시가 지난 5월 개원한 서울기록청과 같은 기록물보관소가 조성 될수 있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광진구의 핵심전략의 하나인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함께 실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가자	내 용
김희순 **(중곡4동)**	◌ 뉴욕시 국립기록원, 뉴욕시 지방기록원, 미국 국립 기록청, 링컨 기념관 9.11메모리얼파크, 뉴욕국립도서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방문하면서 느낀 소감을 다 적어야 하겠지만 민원여권과 기록물관련 팀장과 교육지원과 독서진흥팀 도서관 담당팀장을 역임하면서 지방 공공기록물 관리와 뉴욕 공립 도서관운영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먼저 뉴욕시 지방기록원은 이민자의 나라답게 미국 뉴욕 정부의 기록을 보존하고 시민들의 기록 유산 ex) 가족관계등록부, 이민기록(나이, 신장, 눈, 머리색깔 등) 귀화, 뉴욕항에 도착한 선박의 여객 명단 등을 관세청과 이민 귀화국에 의해 작성 되어 뉴욕시 연방 기록원에서 통합 보존 관리되고 있고 연방기록원을 상시 개방하여 보존현황에 대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시민들이 기록원을 찾아 기록물을 열람하고 학습 연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 있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부단한 대화라고 한다. 기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데 이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국가기록원과 지난 5.15 개관한 서울기록관이 뉴욕시 지방 기록원처럼 우리의 기록 역사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개방하여 역사 인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체성을 학습하고 견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우리 광진구도 민원실 내에 작으나마 행정박물실이 있다. 그동안 수집된 행정기록물이 헛되지 않게 새 청사 건립 시 행정기록 박물실 및 문서고가 구성되어 더 많은 자료가 수집 · 전시 되길 바래본다. ◌ 빌딩 숲 뉴욕 북적이는 인파 세계 5대 도서관 중 하나인 뉴욕 공립 도서관을 찾았다. 뉴욕공립도서관은 엄청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높은 건물로 고즈넉하고 다소 작아 보여 발길을 멈추게 한다. 안으로 들어서면 도서관 내에는 약 4천 만점이 되는 도서와 소장품들이 120킬로미터에 달하는 책들이 진열 되어 있다. 도서검색은 15분 안에 찾을 수 있다고 하며 전 세계에서 접속이 가능하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3층 열람실은 넓은 천장과 아치형 창문도 특별하고 눈길을 끌게 만들었다. 도서관 안의 검색대 및 열람테이블 좌석 스탠드 도서 집기 등 분위기 자체가 중후하고 중세시대 분위기를 연상케 한다 그리고 수많은 여행객이 드나들고 열람실에서 사진 찍는 소리에 불편 할 뻔도 한데 그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집중해서 열람하고 연구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토록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다. 도서관은 보통 자료를 찾고 열람하며 조용한 도서관을 생각하게 되는데 뉴욕공립도서관은 관광명소로 개방하여 세계 각국 명성을 얻고 여행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어 부럽기도 하다. 재정이 따라야 하겠지만 우리구도 미래 도서관 발전계획으로 보다 나은 광진정보 도서관,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탈바꿈 하여 광진구의 명물 도서관으로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

참가자	내 용
어광희 **(감사담당관)**	◌ 모든 자료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보관하며, 이용은 빠르고 쉽게! 1911년에 건립되어 세계 5대 도서관의 명성을 갖고 있는 “뉴욕 공립 도서관”. 19세기 유행했던 보자르 양식의 하얀 대리석 건물과 입구를 지키고 있는 사자상, 수천권의 도서를 둘 수 있게 만들어진 발코니형 서가와 하늘을 그려놓은 3층 열람실의 높은 천장과 아치형 창문, 그 분위기에 다시 찾아 가고 싶어진다. 우리나라에도 한국적 미를 살린 건축물과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특별한 도서와 자료들을 소장한 멋진 도서관을 건립한다면, 한국 관광 시 꼭 방문해야 할 랜드마크로 더 나아가 뉴욕 공립 도서관처럼 세계적 명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한편 뉴욕 공립 도서관은 방문자들의 이용과 도서 활용의 편의를 위해 소장된 저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그리고 세계 어디서나 빠른 시간안에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아울러 뉴욕 공립도서관이 소장한 희귀본이나 출판물, 원고, 지도 등 70여 만 점의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는 ‘디지털 갤러리’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한 뉴욕시 국립기록원도 연방기관과 법원이 작성한 수많은 영구 기록물들을 전자문서(마이크로필름 등)로 저장 · 관리하고 있어 원하는 자료를 아주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중요한 도서나 기록물들을 잘 보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래전의 그 수많은 자료들을 일일이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여 영구적 보관은 물론 열람과 활용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잘 갖춰 놓은 것이 참 놀라웠다. ◌ 풍요속의 빈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높은 건물들이 즐비한 뉴욕 맨하탄은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 월 스트리트 등 그 명성만으로 화려하고 부요한 도시이다. 그러나 뉴욕의 화려한 모습 뒤에 지저분한 지하철, 거리 곳곳마다 homeless들로 넘쳐나는 맨하탄은 지저분하며 자유스럽다 못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듯 한 느낌까지 들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시민들 안전과 편의, 깨끗한 환경까지 생각하는 대중교통 시설과 노숙인들도 세심하게 챙기고 살뜰이 살피는 행정체계에 서울시 시민의 한사람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참가자	내 용
나영선 **(민원여권과)**	◌ 뉴욕시 국립기록원 기록원에서의 머리가 새하얗게 샌 자원봉사자 할아버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마이크로필름 열람을 어떻게 하는지 여쭤봤었는데, 너무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시연해 주셨다. 입항 기록이었는데, 입항한 사람의 이름, 몸무게, 머리 색깔 등 개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있는 문서였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 자기들의 조상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정부가 생산하고 관리한 기록은, 정부의 것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소싯적에는 국가기록원처럼 큰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간지가 나는 줄 알았던 철없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자치구 기록 관리를 하다 보니, 이곳에는 인생의 희노애락, 생로병사가 다 있지 않겠는가.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성장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고,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하러 온다. 차를 사면 자동차를 등록하며, 집을 지으면 건축허가를 내주며, 죽으면 사망신고를 하러 온다. 한 개인 인생에 중요한 시점 마디마디 마다 구청의 역할이 크다. 행정에서 파생된 필연의 결과물들을 잘 관리하고 열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나의 일이 자랑스럽다. 국립기록원 자원봉사자 할아버지처럼 누구에게도 친절하고, 사명감 있는 기록관리자로 성장하고 싶다. ◌ 뉴욕시 지방기록원 솔직히 세계적인 도시에 있는 지방기록원이라 어마어마한 열람실과 전시실을 생각했었는데, 그 규모는 소박했다. 하지만 자료열람에 도움을 주는 친절한 직원과 원본 자료를 열람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사진을 찍어가는 연구자의 진지한 모습이 인상 깊었다. 도시계획 당시의 회계기록물, 건축과정 등을 전시하고 있었다. 허허벌판이었던 도시에 “계획”을 하고, 건물을 “설계”, “시공”하는 과정들을 사진 기록으로 자세히 남겼다. 광진에 10년 동안 기록 관리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1995년 성동과 광진 분구 당시의 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분구 당시 기록을 찾기 위해 광진은 성동에서, 성동은 광진에 물어보고 찾아보기를 여러 번 했었다. 이제부터라도 가깝게는 광진의 신청사 설계와 준공 과정의 기록을 잘 보존해서 100년 뒤 컬렉션을 만들어 전시하게 되는 날을 꿈꿔보기도 한다.